

TV 4월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Program Name, Time, and Description.

민권운동 선구자 흑산도 '김이수의 삶'

KBS1 '역사추적' 오늘 밤 11시 30분 방영

조선 후기 민권운동의 선구자인 김이수(金理守·1743~1805)의 생애와 행적이 전파를 탄다. 신안군은 260여 년 전 흑산도를 비롯한 인근 섬 지역 사람들의 불합리한 세금 문제와 민원 해결을 위해 앞장섰던 김이수의 생애와 행적이 4월 11시 30분에 KBS1 '역사추적'을 통해 재조명된다...

으로 뿔뿔이 흩어져야 하는 참혹한 생활을 겪게 되자, 이를 바로잡고자 1767년부터 40여 년 동안 섬 주민들의 손과 발이 꽤 흑산진, 나주목, 전라감영과 한양을 오가며 시정을 요구했다. 김이수의 활동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1791년 흑산도 주민에게 가장 큰 폐단을 '다나무 세금'을 개혁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바다 건너 수천 리 한양까지 올라가 정조 임금의 행차를 가로막고 '격쟁(擊鎗)'을 울린 일이다. 신안(上言)과 함께 조선시기 소민제도 중의 하나였던 격쟁은 임금의 행차 길에 징이나 팽과리를 치면서 시신을 집중시키고 나서 직접 억울한 일을 호소하는 방법이다.



김이수의 존재와 활동은 그동안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가 후손들과 신안 문화원의 노력으로 '김이수 전기'가 발간되면서 이 같은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최근 흑산도의 묘소와 대문도 생가, 흑산현터, 신안군청, 전남도청 등을 촬영한 KBS 역사추적팀은 김이수 후손들의 제사와 흑산 주민들의 생활상을 토대로 조선시기의 상황을 재연하고, 학계 전문가들의 인터뷰 내용 등을 담아 방영할 예정이다. 방송은 흑산도의 민초 김이수의 굽지 않는 노력과 정조의 열린 정치가 빛낸 역사 속의 작은 큰 승리를 조명하는 내용을 소개한다고 신안군은 전했다.

광주지역 선구생 리그전. 1국 총보(1~170). Includes a Go board diagram and text about the tournament.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4일(음 4월 10일 己酉). Includes zodiac signs and fortune tellings.

EBS and EBS플러스1, 2 program schedule table with columns for time and program details.

Language learning section with four columns: English, Japanese, Chinese, and Korean. Includes phrases like 'we won't know until it's announced' and '告白(こくはく)されちゃった'.